

초등학교 민요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에 관한 연구

한 윤 이*

민요를 부를 때 반주되는 장구 장단은 노래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연주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에서는 각 장단에 대해 여러 가지 형태를 익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장단의 형태를 왜, 어떠한 기준으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요의 반주 장단이 달고 맺는 형태로 연주되는 구조적 원리를 초등학교 장단 교육에 도입하고자 초등학교 개정 음악 교과서의 전래동요와 민요 가창곡을 중심으로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수준에 적절한 민요 장단의 지도 내용 체계를 세워보았다. 그 결과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는 노랫말과 선율의 단락을 근거로 분석할 수 있었으며 달고 맺기와 관련된 민요 장단의 지도 내용으로는 노랫말이나 선율을 중심으로 한 악곡의 단락 구조,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달고 맺는 장단형 등을 선정할 수 있었다.

※ 주제어 : 국악 교육, 장단 지도, 달고 맺는 구조, 개정 음악과 교과서

차 례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초등학교 민요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1. 개정 음악 교과서의 국악 가창곡
 2. 민요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 IV. 민요 장단의 지도 내용 체계
- V. 결론 및 제언

* 대전천동초등학교 교사

I. 서론

판소리나 산조와 같은 음악은 기경결해(起景結解)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단도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구조로 반주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러한 구조는 비단 판소리와 산조뿐만 아니라 민요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민요에서는 판소리와 산조처럼 치밀하게 짜여 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구조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음을 음악의 흐름이나 반주 장단의 연주법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민요의 반주 장단은 주법에 변화를 주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연주하거나 장단에 세(勢)를 줌으로써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기능을 부여하는데 이렇게 민요 가창 시 다양한 형태로 반주를 하면 음악과 반주가 조화를 이루고 음악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며 음악의 미적 표현을 한층 높여 준다. 이러한 민요 반주 장단의 연주법은 장단을 바르게 이해하며 장단과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므로 학교 교육에 어느 정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민요 장단 지도는 다양한 형태의 장단을 지도 내용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어느 때 어떤 장단을 연주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안내가 부실하다. 5~6학년 개정 교과서가 아직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장단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 대한 실태 분석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3~4학년의 민요 장단 지도는 여전히 한 가지 형태로 연주하도록 지도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장단을 음악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연주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세마치, 자진모리, 중중모리, 굿거리장단의 여러 형태를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이해도 여전히 미흡하다. 연구자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장단을 달고 맺는 것으로 구분하여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어려움 없이 잘 이해하였으며 오히려 음악의 단락을 알고 단락에 어울리는 장단을 선택하면서 반주하는 모습과 이렇게 터득한 장단 운용 방법을 다른 곡에도 스스로 활용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의 지도는 학교 교육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며 장단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장단의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기능이나 구조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상당히 이루어져 있다. 다만 이를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을 뿐이다. 학교 교육에 판소리나 산조 등 전문가의 세련된 음악에서 장단을 운용하는 것처럼 지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국악 가창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래동요나 민요에 적용이 가능한 장단의 구조를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요 장단에 적용이 가능한 장단의 구조를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개정 음악 교과서에 실린 국악 가창곡의 장단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지도하기 위한 내용 체계를 세움으로써 다양한 민요 장단을 연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서(2008)에 따르면 맺고 푸는 기능에 따라 장단의 세와 장단의 끝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를 지도하도록 암시하고 있다. 또한 개정 5~6학년 음악 교과서(주대창 외, 2010)에서는 장단을 가락이 이어질 때 치는 장단과 가락을 맺을 때 치는 장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또 다른 5학년 음악교과서(신계휴 외, 2010)에서는 다는 장단과 맺는 장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달고 맺는 장단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장단의 내고 달고 맺고 푸는 기능과 구조의 지도가 학교 교육에 적극 도입된 것이며, 여러 형태의 장단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맺고 푸는 기능에 따라 장단을 지도하도록 한다는 설명은 재고해야 한다. 초·중등학교 가창곡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민요의 장단은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장단은 맺고 푸는 기능으로 구분하기보다 우선 달고 맺는 기능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할 연구로서 이보형은(2006)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장단의 ‘내고 달고 맺고 풀기’에 있어서 그 의미와 생성 과정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장단의 달고 맺는 기능은 주로 판소리, 산조, 전문 농악과 같은 일부 특수 음악에 보이고 그 중에서도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와 같은 장단에 두루 나타나는 것이지만 중중모리와 같이 3소박 조금 빠른 4박 장단에서 이런 특성이 잘 드러난다(p. 193).

장단이 지시하는 ‘단다’는 어의적 의미는 ‘이어진다(承)’는 것인데 이는 악절 중간에 음들이 응집력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지시하는 말이고 ‘맺기’의 어의적 의미는 ‘맺는다. 맺어 떨어진다(結), 단락 짓는다’는 것인데 이는 악절이 단락 짓는 특성을 지시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p. 215).

중중모리의 ‘달고 맺기’라는 의미는 진양 장단의 ‘기 경 결 해’라는 의미가 생성되기 전에 먼저 생성되었고 진양 장단의 ‘기 경 결 해’라는 의미는 중중모리 장단에서 ‘달고 맺기’라는 의미가 생성된 훨씬 뒤인 일제시대에 생성되었다(p. 189).

중중모리의 ‘달고 맺기’ 의미는 선율 리듬형의 변화에 따라 음악적 자율성으로 생성된 것이지만 진양 4각 ‘기 경 결 해’ 의미는 고형의 인위적인 구성 논리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전자는 선율 악절의 지속과 단락이라는 맥락에 따라 음들의 응집력으로 악절 지속에는 ‘달기’라 하여 음들이 뒤로 당겨지고 악절 단락에는 ‘맺기’라 하여 음들이 앞으로 밀리는 리듬 통사 구조 및 형태 구조를 달리하는 것을 지시하는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반주하는 고형 의미도 같이 생성되는 것이지만, 후자는 반각(소점) 내기, 매화점(채 굴림) 달기, 온각(대점) 맺기, 뒷손 풀기라는 중모리 4대박 고형 의미를 진양 4각(24박) 고법 틀에 전용하여 부여되는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pp. 232~233).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중중모리, 자진모리와 같은 3소박 4박 장단에서는 달고 맺는 기능이 잘 드러난다고 하였고 중중모리의 ‘달고 맺기’는 진양 장단의 ‘내고 달고 맺고 풀기’보다 이전에 생성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 의미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중중모리 ‘달고 맺기’의 의미는 ‘이어간다’와 ‘단락을 짓는다’라는 선율 악절의 지속과 단락이라는 맥락에 따른 지시이

고, 진양 ‘기 경 결 해’는 중모리의 고행 의미를 진양 4각에 부여 한 것으로 내기, 달기, 온각 맺기, 뒷손 풀기라는 의미를 지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맺기’의 의미가 중중모리와 진양에서 다른 의미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으며 중중모리와 같은 장단에서 단락은 ‘맺기’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진양 장단에서는 ‘풀기’에서 단락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결국 중중모리나 자진모리와 같은 장단은 달고 맺는 기능으로 장단을 구분할 수 있고 달고 맺는 구조로 반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국악 가창곡의 대부분이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임을 감안하면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언급한 맺고 푸는 기능으로 장단을 연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달고 맺는 기능으로 구분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알맞다. 달고 맺는 기능은 중중모리와 같은 박 구조와 한배를 지니고 있는 굿거리장단, 자진모리장단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판소리와 산조 같은 전문 음악 외에 민요 반주 장단을 다양하게 운용되는 방법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가창곡의 장단을 다양하게 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장단을 달고 맺는 기능과 구조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장단의 형태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Ⅲ. 초등학교 민요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1. 개정 음악 교과서의 국악 가창곡

초등학교 3~6학년 음악 교과서에는 전래동요와 민요, 국악창작동요 등을 통해 민요 반주 장단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전래동요는 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원래 장단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반주 없이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장구 반주를 덧붙여 형식화하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악창작동요는 현대적 작곡법을 사용하여 민요의 음악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요의 분석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악곡에 쓰이는 민요 장단의 거시적 구조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가창곡 중 전래동요와 민요를 중심으로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분석하고 지도 내용 체계를 세워보았다.

현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음악교과서가 모두 개발되었으며 2011학년도에는 1~6학년까지 모두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 교과서는 3~4학년의 경우 국정교과서로 개발되었고 5~6학년은 검정교과서 체제를 갖추고 있어 5~6학년의 국악 가창곡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5~6학년 음악 교과서는 아직 출판되지 않아 전신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3~6학년 음악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전래동요와 민요를 분석해보니 다음과 같았다.

<표 1> 3-6학년 음악 교과서의 전래동요와 민요¹⁾

학년	악곡	장단	출판사
3	어깨동무, 두꺼비집이 여물까 덕석물자, 남생아놀아라	자진모리	교육과학기술부
	자장가, 동개동개동개야	*	교육과학기술부
	아리랑	세마치	교육과학기술부
	월월이	*	교육과학기술부
4	나물노래, 군밤타령, 새노래 개고리 개골청, 자진강강술래	자진모리	교육과학기술부
	도라지타령	세마치	교육과학기술부
	강강술래	중중모리	교육과학기술부
	천안삼거리	굿거리 *	교육과학기술부
5	돈돌라리	자진모리	천재
	떡노래	자진모리	금성, 태성
	도움소	중중모리	금성
	태평가	굿거리	천재
	넬리리아, 서우젯소리	굿거리	금성
	거문도벚노래	굿거리	금성, 태성
	메밀노래, 가래질소리	*	천재

1) 장단에서 *표는 장단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제시되어 있더라도 선율이나 장단의 기본 박만 지도할 뿐 정확한 주법을 지도하지 않는 경우이고, 출판사명 다음에 표기된 ()의 숫자는 제재곡이 제시된 해당 학년이다.

학년	악곡	장단	출판사
6	꼬리따기	자진모리	미래
	풍구타령	자진모리	천재
	청어엮자	자진모리	태림
	강강술래 놀이요	자진모리, 중중모리	태성, 미래
	장장짚세기	자진모리, 세마치	금성
	진도아리랑	세마치	미래
	산아지타령	세마치	천재
	너영나영	세마치	태성, 미래
	등당기타령	중중모리	태성, 태림, 미래
	등당애타령, 애농데농	중중모리	금성
	싸름	중중모리	태림
	해남짚타령	중중모리	천재
	금다래꿍	중모리 * (중중모리)	금성, 태성, 미래, (태림)
	봉죽타령	굿거리	천재교육
5, 6	고사리꺾기(고사리꺾자)	자진모리	금성(5), 천재(6)
	쾌지나칭칭나네	굿거리	태성(5), 천재(5), 금성(6), 미래(6)
	풍년가	굿거리	태성(5), 금성(6)

위와 같은 분석 결과,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는 자진모리, 세마치, 굿거리, 중중모리 등의 장단이 지도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 장단의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3학년은 자진모리와 세마치장단을 지도하고, 4학년은 세마치, 자진모리, 중중모리장단을, 5학년은 자진모리, 중중모리, 굿거리장단을, 6학년은 자진모리, 세마치, 중중모리, 굿거리장단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장단 지도는 이처럼 전래동요와 민요에 쓰이는 반주 장단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특히 교과서의 노래 악보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에게 어렵지 않도록 최대한 단순화하고 구조화되어 있고 장단은 자진모리, 세마치, 굿거리, 중중모리 장단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 중 자진모리, 굿거리, 중중모리와 같은 3소박 4박 장단으로 이루어진 악곡에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분석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2. 민요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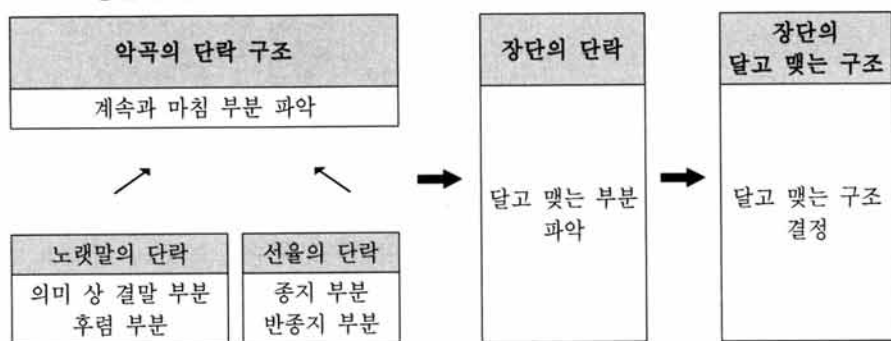
최근 장단에 관한 연구(한윤이, 2009)에 의하면 장단의 달고 맺는 기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랫말과 선율의 단락을 들고 이에 따라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악곡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장단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노랫말의 구조가 선율의 구조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노랫말의 특성²⁾에 따라 장단의 달고 맺는 기능을 결정하고 달고 맺는 구조로 반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국악 가창곡을 지도할 때 노랫말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선율도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랫말과 선율의 단락 구조를 포괄하는 악곡의 단락 구조를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악곡의 단락 구조는 장단 반주 시 달고 맺는 장단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달고 맺는 장단을 지도하기 위해서 꼭 다루어져야 하는 학습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악곡의 단락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악곡에서 단락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악곡의 단락은 노랫말의 단락과 선율의 단락이 일치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랫말의 경우는 의미상 결말을 짓는 부분이나 후렴 등이 단락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선율의 경우는 종지형 선율이 단락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노랫말에서는 결말 부분이나 후렴을 찾고 선율에서는 종지 또는 반종지 선율을 찾아 악곡의 단락을 구분한다. 악곡의 단락에서 단락의 끝 부분은 ‘마침’의 기능을 하고 이외의 부분은 ‘계속’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고려하면 악곡의 단락 구조는 ‘계속’과 ‘마침’의 짜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계속’과 ‘마침’으로 짜여진 악곡의 단락 구조는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데 악곡에서 ‘계속’에 해당하는 부분은 장단의 ‘달기’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악곡에서

2) 노랫말의 내용 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내용의 의미를 분석하여 도입, 전개, 결말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마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장단의 ‘맺기’의 기능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단락 구조가 ‘계속-계속-계속-마침’이면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는 ‘달고-달고-달고-맺기’가 되는 것이다. 결국 악곡의 단락 구조를 파악하여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은 노랫말과 선율의 단락을 구분하여 악곡의 단락을 짓고 이를 토대로 장단의 단락을 파악하여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표 2>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결정 과정



본고는 학교 음악 수업 시간에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악곡의 단락 구조는 초등학교 개정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악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개정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가창곡의 노랫말을 살펴보니 후렴구³⁾가 있는 노래, 지속적 반복구⁴⁾가 있는 노래, 후렴구나 지속적 반복구가 없이 일련의 노랫말로 이루어진 노래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3) 후렴구는 일반적으로 노래의 각 절 끝에서 반복되는 노랫말을 의미함

4) 지속적 반복구는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된 노래에서 메기는 소리 다음에 오는 짧은 받는 소리를 의미한다. 받는 소리도 넓은 의미로는 후렴구에 포함될 수 있지만 메기고 받는 소리로 된 노래는 노래가 끝날 때까지 수없이 메기고 받기 때문에 몇 개의 절로 이루어진 노래의 후렴구와는 단락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차이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3> 교과서 전래동요와 민요 가창곡의 노랫말에 따른 구분

구분		해당곡
후렴구가 있는 노래	각 절 끝에 후렴구가 오는 경우	자장가, 천안삼거리, 군밤타령, 태평가, 너영나영, 씨름, 도라지타령, 풍년가
	각 절 앞에 후렴구가 오는 경우	돈돌라리, 놀리리야, 아리랑, 금다래궁, 진도아리랑,
지속적 반복구가 있는 노래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 경우	덕석물자, 꼬리따기, 훨훨이, 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거문도뱃노래, 꿰지나칭칭나네, 등당기타령, 에농데농
	두 장단씩 메기고 받는 경우	도움소, 서우젓소리, 등당애타령,
일련의 노랫말로 된 노래		어깨동무, 두꺼비집이 여물까, 남생아 놀아라 등개등개 등개야, 나물노래, 새노래, 개고리 개골청, 청어엿자, 장장짚세기, 메밀노래, 떡노래, 고사리꺾자(고사리꺾기), 풍구타령, 봉죽타령, 해남짱타령

<표 3>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민요의 경우 주로 후렴구나 지속적 반복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 노래를 중심으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후렴구가 있는 민요는 주로 통속민요이고, 지속적 반복구가 있는 민요는 주로 향토민요임을 통해 통속민요와 향토민요는 노랫말의 구조 상 차이가 좀 있으며 이 때문에 통속민요와 향토민요는 특징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각각의 사례에 해당하는 악곡을 선정하여 악곡의 단락 구조를 분석하고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을 적용해보았다.

1) 후렴구가 있는 노래

후렴구는 원래 각 절의 끝에 반복되는 노랫말을 의미하는데 전래동요와 민요에서는 후렴구의 역할을 하는 노랫말이 각 절 앞에 오기도 한다. 본 연구는 교과서에 제시된 악보를 가지고 분석하고자 하므로 교과서 악보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후렴구가 있는 노래는 노래 각 절의 끝에만 오는 것과 노래 각 절의 앞에 오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 각 절 끝에 후렴구가 오는 경우

‘풍년가’는 후렴구가 각 절의 뒤에 나오는데 후렴구의 노랫말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선율을 보면 후렴구의 선율은 각 절 노래의 선율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각 절의 끝과 후렴구를 중심으로 단락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절의 마지막 장단과 후렴구의 마지막 장단은 마침의 기능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장단은 계속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절과 후렴구의 끝 장단은 마침의 기능을 하므로 장단의 기능으로 따지면 맺는 기능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다는 기능에 해당한다.

1. 풍년-이 왔-네 2. 풍년-이 왔-네

3. 금-수 강산-에-풍년-이 왔-네 4. 금-수 강산-에-풍년-이 왔-네

5. 지화-자 좋--다 6. 얼깨구나 좋-구 좋--다

7. 금-수 강산-에-화전-놀-이-가-세 8. 금-수 강산-에-화전-놀-이-가-세

<표 4> '풍년가' 악곡의 단락 구조에 따른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악곡	악곡의 단락 구조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1. 풍 - 년 - 이 왔 - - - 네 2. 풍 - 년 - 이 왔 - - - - 네-	계속	계속	달기	달기
 3. 금 - 수 강 산 - 예 - - 풍 - 년 이 왔 - 네	계속	마침	달기	맺기
 5. 지 화 - 자 종 -- 다 6. 얼 씨 구 나 풍 - 구 종 -- 다-	계속	계속	달기	달기
 7. 금 - 수 강 산 - 예 - - 8. 화 전 놀 이 가 - 세	계속	마침	달기	맺기

(2) 각 절의 앞에 후렴구가 오는 경우

‘닐리리야’는 후렴구가 있는 노래로서 후렴구의 일부인 ‘닐닐리리 닐리리야’를 각 절마다 붙이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후렴구는 노래의 각 절 끝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교과서에 제시된 ‘닐리리야’는 후렴구가 먼저 나오고 각 절의 노래가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후렴구가 각 절의 끝에만 오는 경우 후렴구를 중심으로 단락을 구분하고 구분된 단락 안에서 계속과 마침 부분을 파악하면 되지만 ‘닐리리야’와 같이 후렴구가 각 절의 앞에 오고 각 절의 끝에 후렴구의 일부가 오는 악곡은 후렴구뿐만 아니라 후렴구의 일부가 나오는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우선 노래의 흐름상 노래 앞에 제시된 후렴구는 각 절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단락의 구분은 각 절 끝에 나오는 후렴구의 일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구조 유형1). 또한 악곡의 단락은 후렴구 부분과 후렴구의 일부가 나오는 부분을 각각 단락의 기준으로 보고 나눌 수도 있다(구조 유형2). ‘닐리리야’의 선율은 노랫말의 단락과 마찬가지로 후렴구의 끝 장단 그리고 각 절의 끝에 해당하는 후렴구의 일부가 모두 종지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노랫말의 단락과 선율의 단락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닐리리야’ 악곡의 단락은 2가지 유형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도 2가지 유형이 나온다. 단락의 끝 부분 즉 단락의 마지막 장단은 마침의 기능을 하므로 장단은 맺는 기능으로 보아야 하고, 단락의 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의 기능을 하므로 장단은 다는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

<표 5> ‘넬리리아’ 악곡의 단락 구조에 따른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악곡	구조 유형 1(점선)		구조 유형 2(실선)	
	악곡의 단락 구조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악곡의 단락 구조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1 넬리리아 넬리리아 --	계속	달기	계속	달기
2 니 나 노 난-실-로 내가돌아간 다	계속	달기	계속	달기
3 넬 넬리리-넬리-리아	계속	달기	마침	맺기
4 청사초롱 불 밝혀라 --	계속	달기	계속	달기
5 잇 었 던 남-군- 이 다시돌아온 다	계속	달기	계속	달기
6 넬 넬리리-넬리-리아	마침	맺기	마침	맺기

2) 지속적 반복구가 있는 노래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된 노래는 받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교과서에는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 것과 두 장단씩 메기고 받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1)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 경우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된 민요에는 ‘둥당기타령’이 있다. 이 노래는 받는 소리로 된 노랫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받는 소리로 노래를 마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노랫말의 단락을 구분할 수 있다. 선율도 받는 소리에서 종지형을 취하고 있어 노랫말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1 2
Cw 당 기둥당 기둥당- 기허 Cw 당 기둥당 기둥당- 기허

3 4
Cw 꽃을 꺾 어머 리꽃 - 고 Cw 당 기둥당 기둥당- 기허

5 6
Cw 잎 은 훑 어 입 에 물 - 고 Cw 당 기둥당 기둥당- 기허

7 8
Cw 산 에 올라 걸 구경 하 니 Cw 당 기둥당 기둥당- 기허

9 10
Cw 나 를 보 고 모두 웃 네 Cw 다 기둥당 기둥당- 기허

‘둥당기타령’에서 단락의 끝부분인 받는 소리는 마침의 기능을 하고 단락의 처음 부분인 메기는 소리는 계속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한 단락이 두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계속과 마침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기를 반복한다. 이에 따라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도 한 장단씩 달고 맺기를 반복하는 구조가 된다. 하지만 노래의 처음이 메기는 소리는 받는 소리로 되어

있다. 노래의 처음에 메기는 소리는 받는 소리로써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는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달고 맺는 구조로만 분석하고자 하므로 받는 소리로 이루어진 노래 처음의 메기는 소리는 맺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노래의 첫 장단은 다는 기능뿐만 아니라 맺는 기능으로도 볼 수 있다.

<표 6> ‘동당기타령’ 악곡의 단락 구조에 따른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악곡		악곡의 단락 구조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1	2	계속	마침	달기 (맺기)	맺기
3	4	계속	마침	달기	맺기
5	6	계속	마침	달기	맺기
7	8	계속	마침	달기	맺기
9	10	계속	마침	달기	맺기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노래를 하나 더 예시하면 ‘에농데농’을 들 수 있다. 이 노래도 위와 마찬가지로 받는 소리로 된 노랫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받는 소리로 노래를 마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노랫말의 단락을 구분할 수 있다. 선율의 단락은 받는 소리에서 종지형을 취하고 있으므로 노랫말과 선율의 단락이 일치한다. 따라서 받는 소리는 마침 기능을 하고 메기는 소리는 계속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침의 기능을 하는 마지막 장단은 맺는 기능을 하고 나머지 장단은 다는 기능을 한다. 또한 노래의 처음에 메기는 소리는 받는 소리로 되어 있으므로 노래 첫 장단을 맺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표 7> '에농데농' 악곡의 단락 구조에 따른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악곡	악곡의 단락 구조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계속	마침	달기 (맺기)	맺기
	계속	마침	달기	맺기
	계속	마침	달기	맺기
	계속	마침	달기	맺기
	계속	마침	달기	맺기
	계속	마침	달기	맺기

(2) 두 장단씩 메기고 받는 경우

교과서에 두 장단씩 메기고 받는 가창곡으로는 ‘둥당애타령’이 제시되어 있다. 두 장단씩 메기고 받는 가창곡은 받는 소리의 끝 장단을 기준으로 단락을 나눌 수 있다. ‘둥당애타령’은 두 장단씩 메기고 받기 때문에 받는 소리의 뒤 장단에서 마침의 기능을 하므로 받는 소리의 뒤 장단은 맺는 장단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장단은 계속의 기능을 하므로 다는 장단이 된다. 하지만 노래의 처음에서 받는 소리로 메기기 때문에 받는 소리로 메기는 노래 처음 부분에서 뒤 장단은 맺는 기능으로 볼 수도 있다.

1 둥당 애당 둥당 애당 당 - 기 둥당 애 둥당 애당

2 당 - 기 둥당 애 둥당 애당

3 인 - 사 야 먹 갈 - 아 라

4 부모 - 님 - 께 편지 하 자

5 둥당 애당 둥당 애당 당 - 기 둥당 애 둥당 애당

6 둥당 애당 둥당 애당 당 - 기 둥당 애 둥당 애당

7 검은 먹과 흰종 - 이 는

8 우 - 리 부 모 를 만 나 려 만

9 둥당 애당 둥당 애당 당 - 기 둥당 애 둥당 애당

10 둥당 애당 둥당 애당 당 - 기 둥당 애 둥당 애당

<표 9> '떡노래' 악곡의 단락 구조에 따른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악곡	악곡의 단락 구조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떡 - 떡 떼 기 야 떡 - 떡 떼 기 야	계속	계속	달기	달기
산 중 사 람 은 힘 가 래 떡 - 해 변 사 람 은 갈 파 래 떡 강 가 사 람 은 강 냥 이 떡 - 요 내 요 기 는 고 구 마 떡	계속	계속 (마침)	달기	달기 (맺기)
떡 - 떡 배 비 떡 경 상 도 골 미 떡	계속	계속	달기	달기
조 청 간 에 다 떡 위 송 고 - 요 내 목 으 로 졸 라 당	계속	마침	달기	맺기

후렴구가 없는 일련의 노랫말로 이루어진 노래를 하나 더 살펴본다면 ‘고사리꺾기’를 예를 들 수 있다. ‘고사리꺾기’도 마지막 장단에서 단락을 나눌 수 있고 마지막 장단이 노랫말과 선율의 마침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장단이 마침 기능한다면 나머지 장단은 상대적으로 계속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마침의 기능을 하는 마지막 장단은 맺는 기능을 보고 나머지 장단은 다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표 10> ‘고사리꺾기’ 악곡의 단락 구조에 따른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악곡	악곡의 단락 구조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고 사 리 대 사 리 꺾 자 나 무 대 사 리 꺾 자	계속	계속	달기	달기
유 자 쫄 쫄 재 미 나 념 - 자 아 장 장 장 별 이 여	계속	계속 (마침)	달기	달기 (맺기)
꺾 자 꺾 - 자 고 사 리 대 사 리 꺾 자	계속	계속	달기	달기
앞 동 산 고 사 리 꺾 - 어 다 - 가 우 리 아 빠 반 찬 하 세	계속	마침	달기	맺기

다만, ‘떡노래’의 4째, 8째 장단과 ‘고사리꺾기’의 4째 장단과 같이 선율이 반복되거나 악곡 중간에 종지형의 느낌을 주는 선율이 나오는 경우는 단락을 한 번 더 나눌 수도 있다. 따라서 일련의 노랫말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선율의 흐름을 파악하여 악곡 중간에 단락을 지어 맺는 장단으로 연주해도 무방하다.

이상과 같이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악곡의 단락 구조를 살피는 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악곡의 노랫말과 선율의 진행을 고려하여 달고 맺는 구조로 장단으로 반주한다면 노래와 반주가 조화를 이루고 음악의 흐름에 맞는 장단을 연주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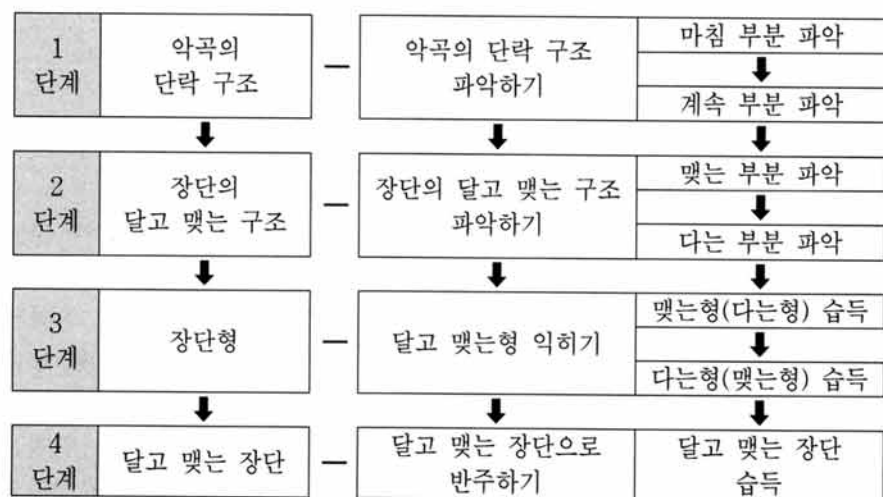
IV. 민요 장단의 지도 내용 체계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민요 장단의 지도 내용도 장단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 필수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는 악곡의 흐름에 맞게 장단을 달고 맺는형으로 나누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할 장단의 지도 내용으로는 악곡의 단락 구조,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 장단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선수 학습 내용은 후속 학습 내용을 위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장단의 지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연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민요 장단의 지도 내용 체계는 먼저 악곡의 단락 구조를 파악하고 악곡의 단락 구조를 통해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결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는 장단형을 지도하는데 다능형과 맺는형으로 나누어 지도한다. 장단에 따라 다능형과 맺는형의 활용도나 주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능형이나 맺는형 중 보다 두루 쓰이는 장단형을 먼저 지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여기에는 주법과 장단형이 단순한 형태로써 장단을 쉽게 익힐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악곡의 처음에 장단과 박을 지시하는 내는형으로 맺는형이 활용되고, 단순한 형태의 맺는형은 세를 제거하면 다는형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맺는형을 먼저 지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다는형과 맺는형으로 나누어 지도한 후에는 다는형과 맺는형의 세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맺는형에 세를 넣어 맺는 느낌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이러한 순서대로 지도한다면 악곡의 흐름에 맞게 달고 맺는 구조로 장단 반주가 가능하고 장단의 활용 능력과 이해력, 그리고 표현력이 훨씬 풍부해질 것이다.

<표 11> 장단의 지도 내용 체계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장단 지도는 장단형을 익히고 습득한 장단형을 노래에 맞게 박만 맞추어 반복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노

래의 흐름과 장단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연주하도록 함으로써 악곡과 장단의 어울림이나 긴밀한 관계를 간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악곡이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 끝나는 지에 관계없이 한 가지 형태의 장단을 연주하면서 때로는 악곡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한다. 연주되는 장단의 형태와 주법은 악곡의 흐름 즉 악곡이 계속되고 끝나는 느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단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악곡의 단락 구조에 따라 장단의 다양한 형태 특히 다는 형태와 맺는 형태로 연주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보았다.

악곡의 단락 구조는 장단의 다양한 형태를 언제, 어떻게 연주할지에 대한 결정적 근거가 된다. 악곡이 계속되는 부분에서는 다는 장단을 연주해야 하고 마치는 부분에서는 맺는 장단을 연주해야 노래와 반주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악곡의 단락 구조는 노랫말과 선율의 단락에 의해 결정되는데 노랫말의 경우 후렴구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에서 단락을 나눌 수 있으며 선율의 경우 종지형에서 단락을 지을 수 있다. 이러한 노랫말과 선율의 단락에 의해 악곡의 단락 구조를 분석해보니 크게 계속의 기능을 하는 부분과 마침의 기능을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고 여기에 장단의 달고 맺는 기능을 적용하여 보니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3~6학년 개정 음악과 교과서의 국악 가창곡을 대상으로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분석한 결과 여러 장단 달고 마지막에 맺는 구조(제 1유형), 여러 장단 달고 가다 중간에 맺고 다시 여러 장단 달고 가다 마지막에 맺는 구조(제 2유형), 한 장단씩 달고 맺기를 반복하는 구조(제 3유형) 등이 나타났다. 통절형식처럼 일련의 노랫말로 되어 있는 노래는 제 1유형에 해당하였고, 후렴구가 있는 노래와 두 장단씩 메기고 받는 노래는 제 2유형에 해당하였으며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 노래는 제 3유형에 해당하였다. 특히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된 노래에서는 노래 처음에 메기는 부분은 받는 소리로 되어 있어 맺는 것으로 볼 수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은 악곡의 단락 구조에 따라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형태의 장단을 달고 맺는형으로 구분하여 악곡의 흐름에 알맞게 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장단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장단의 활용 능력과 창의적 표현력을 길러줄 수 있는 장단의 지도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에 이어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결정 요인으로써 리듬 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겠고, 각 장단별로 달고 맺는 장단형을 구분하는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해야겠다. 또한 학년에 적절한 달고 맺는 장단형과 달고 맺는 구조로 장단을 연주하는 적용 사례 연구 및 초등학교에서 장단의 달고 맺는 구조를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서울: 저자.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초등학교 음악 3, 4**. 서울: 교학사.
- 김신표 (2003). 소리의 흐름에 따른 장단 기능에 대한 연구 - 초등학교 민요 장고 반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신계휴외 7인 (2010). **초등학교 음악 5, 6(전시본)**. 서울: 천재교육.
- 양종모외 7인 (2010). **초등학교 음악 5, 6(전시본)**. 서울: 금성출판사.
- 여병동 (2002).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민요 장고 반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이루지 (2009). 교과서에 수록된 민요의 변형 장단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보형 (1995). 한국민속악 장단의 리듬형에 관한 연구 - 중중모리, 굿거리, 타령, 살풀리와 같은 3소박 느린 4박자형 장단을 중심으로. **민족음악학**, 16, 39~70.

- 이보형 (1997). 장단 리듬형의 형태 구조 및 통사구조와 그 변화 연구. **민족음악학**, 19, 1~47.
- 이보형 (2004). 판소리 대목의 작품 텍스트 리듬 거시구조에 대한 담론 분석. **한국음악연구**, 36, 7~30.
- 이보형 (2006). 중중모리 '달고 맺기'와 진양 '기 경 결해'의 의미 및 생성 연구. **한국음악연구**, 39, 189-236.
- 이상규 (2004). 국악가창 반주 장단의 구조와 응용에 관한 연구. 2004 상반기 국악학 전국대회 세미나 자료집, 161~175.
- 장기범외 4인 (2010). 초등학교 음악 6(전시본). 서울 : 미래엔 컬처그룹.
- 조효임외 7인 (2010). 초등학교 음악 5, 6(전시본). 서울 : 태림출판사.
- 주대창외 5인 (2010). 초등학교 음악 5, 6(전시본). 서울 : 태성.
- 최인옥 (2004). 노래 반주 장단의 창의적 변형 방법 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 한윤이 (2009). 노랫말의 특성에 따른 장단의 구조 및 지도 내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s of *Dalgo Maekki* of Minyo Jangdan in the Elementary School

Han, Yun-yi

Janggu's Jangdan accompanying a *Minyo* (Korean folk song) is played in a variety of ways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songs played. It is given consideration when many different forms are taught about each *Jangdan* in school. However, guidelines on the reasons and standards for teaching various *Jangdans* have not been sufficient, and educational research supporting the current practice has 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Thu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instructional systems appropriate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vel and suggest the principles of *Minyo's* accompaniment *Jangdan* being played in *Dalgo and Maeneun* patterns. For the instructional content of *Dalgo and Maeneun Jangdan*, minimum requirements including paragraph structures of a music piece with a focus on lyrics or melodies, *Dalgo and Maeneun Jangdan's* structure, and rhythmic patterns of *Jangdan* are selected. Based on these

selections, step-by-step instruction plans are presented in elementary school's music curriculum. First, students are asked to identify paragraphs of a musical piece in terms of continuation and ending structures and understand *Dalgo and Maeneun Jangdan's* structure by applying *Jangdan's Dalgo and Maeneun* functions. Next, students are supposed to learn rhythmic pattern of *Jangdan* from *Maeneunhyung* (the

rhythmic pattern to function conclusion) to *Daneunhyung* (the rhythmic patterns to work continuation) and the accent of *Maetneunhyung* and then play the music piece in *Dalgo and Maetneun Jangdan*. This method of making students understand *Dalgo and Maetneun Jangdan*'s structure and play in the *Jangdan* can promote students' accurate understanding and creative expressions.

key words: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Jangdan, Structure of Jangdan, Dalgo and Maetneun Jangdan, the Revised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투고일: 1월 31일, 심사(수정)일: 3월 14일(3월 23일), 게재확정일: 4월 13일